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형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문지방 너머도 천리만리도 '한생각'

오늘도 여러분을 모시고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일이 있다면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 바로 불(佛)이며, 일체 만물만생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교(敎)라는 것입니다. 미생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뜻합니다. 풀 한 포기만 살아있어도 불교이며, 모든 일체 생

가던 도중 한쪽에 놓인 뱀 무더기를 보시고는 그 앞에 절을 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사생의 자부신데 어찌 이런 뱀 무더기에다 절을 하십니까?"라고 여쭙니까 "모두가 내 할아버지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아님이 없느니라. 모두가 돌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뱀 한 무더기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부모가



그림 · 최주현

이 따로 있거나 인과응보가 따로 있거나 유전성이나 세균성, 업보성, 영계성 이런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지어놓고 거기에 걸려서 꼬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항상 말을 하죠. 모두에게는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고 보이는 자기가 있다구요. 보이는 자기로 인해서 상대가 생겼고 세상이 벌어졌으니 보이는 자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을 나무라고 비유한다면 당신의 종자는 바로 뿌리인 것입니다.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될 수 있지, 제 뿌리를 믿지 않고 이들과 형상을 믿고 항상 타의에서 구하는 기도나 한다면 그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법당이 있습니다만 법당도 꼭 사찰에 있는 법당만 법당이 아니라 각자 자기 몸뚱이가 바로 법당입니다. 내가 없다면 세상도 없고 상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법당일 수 밖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라면 번소간도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인 셈이죠. 법당에 와서 절을 할 때도 '아, 저 부처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니 모두가 돌이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동공시켜서 한다면 일체를 올린다 해도 삼천배 못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이치를, 이렇게 시원하고 광대무변한 이치를 여러분 모두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우주 바깥으로 한생각에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문지방 너머도 한생각, 천리 만리도 한생각, 지구 바깥도 한생각, 한생각이라는 것은 빛보다 빨라서 한 찰나에 나고 들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이 세상에 형성되지 않았다면 어찌 상대가 있고 생명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는 줄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과 여러분이 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겠습니까. 부처님의 마음으로써 수없는

보살이 탄생을 했고 보살의 이름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의 불종이 즉 말하자면 주장자가 약사가 돼주고 의사가 돼주고, 또 때에 따라서 명이 짧으면 칠성이 돼주고 좋은 데를 못가면 지장이 돼주고 이렇게 참나 참나 나무어 여러분 마음속에 다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네들을 찾아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법당에 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만 명이라 할지라도 또 만 명의 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인공의 한마음에 잡아넣는다면 몇이나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이 허공에 꼭 차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꼭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응신으로 나무어 화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마음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내 생명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께서 응신으로 나무어 화해 주십니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어느 모습으로 왔을 때, 어느 것을 봤을 때, 어느 마음으로 봤을 때, 내가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한다고 하겠느냐, 내가 있었다고 하겠느냐, 내가 부처라고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나 참나 고정된 게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고, 할 것이 없고, 내가 함이 없이 했다고 하며 어떤 발자국을 떼어냈을 때 내가 내 발자국을 떼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뭣 발자국 쳐다볼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떼어냈다는 생각도 없이 앞으로 또 한발짝 나가고 있는데 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생활이 전부 그러합니다. 참나 참나 화해서 돌아갈 뿐이니 집착에서 벗어나 놓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는데 공장에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고 열심히 남몰래 해도 수습도 되지 않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길래 "그게 당신 회사가 아니라 바로 당신 주인공의 회사니 주인공이 다스리게 모든 걸 맡겨놓으세요. 당신은 물질세계에서 물질로서 뛰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에서는 바로 참당신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 참당신이 현실에 물질적인 당신 하고 같이 수레바퀴 돌아가듯 같이 돌아가면 서로 상보 상보 하는 것이며, 같이 여여한 것이며, 같이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이며, 같이 만법을 들고 낼 수 있는 것이며, 같이 참나 참나 나무어 돼 있습니

16면으로 계속

"돈 안내고 쓰는 마음이라고 걸리지 않고 함부로 쓰면 그게 업의 근원되니 잘 써야겠죠"

명과 삶이 불교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불교나 하고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한 개의 몸으로 비유할 수도 있고 또 지구 하나를 우리들 전체의 집이라고 볼 때 온갖 일체 생명들이 다 지구를 하나의 집으로 삼아 살고 있는데 내 집 내 집이 따로 있으며 내 종교 내 종교가 따로 있었습니까. 모두 이렇듯 뿐이지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구가 공기주머니라는 대기관에 싸여 있다는 사실, 또 그 공기주머니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기주머니가 버스타면 우리는 지금 그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공기주머니 안에서 더불어 살고 있고, 일체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기에 불자(佛子)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두가 불자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런 뜻을 말씀하셨지 모습이나 이름을 가지고 내 것이니 내 것이니 하고 따지는 걸 가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돌 아닌 일대사의 인연을 뱀 한 무더기로, 그 뜻을 가르치셨을 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그러면서 진화가 되고 참나 참나 화해서 나무면서 형성됐노라고 말합니다.

그 수많은 광년을 거쳐 올라오면서 지금 여러분이 댔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벌레 한 마리도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내 생명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음을 아실 것입니다. 모두가 못났든 잘났든 내 모습이고 내 삶이었고 내 마음이었고 내 생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바로 공생이며, 공심이며, 공체며, 공용이며,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참나 참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보면 저것 봐야 하고, 이것 말하면 저것 말해야 하고, 여기 가던 저기 가야 하고 또는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 하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을 봤을 때, 어떤 것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말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함이 없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상(四相)을 갖지 말라, 네 걸 놓아서 녹여라, 끊을려면 끊어지지 않으니까 끊는 것도 아니고 안 끊는 것도 아니니 그대로 놓아라"고 하셨습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 중생이 심신(心身)의 개체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집착하는 네 가지의 상(相)을 말합니다. 첫째는 나라는 것도 버리고 내가 한다는 것도 버리고, 둘째는 남이라는 것도 버리고 남이

"마음은 체가 없어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자기가 업보 지어놓고 꼬달리며 살다니..."

한다는 것도 버리고, 셋째는 내가 중생이라는 것도 버리고 남이 중생이라는 것도 버리고 또 내가 이만하면 갖추었지 하는 오만과 아상을 버리고, 넷째는 내가 산다는 생각, 즉 수명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때 서 그 사상을 다 버리고 우리 인생길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 보십시오. 사는 데 진정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살얼음을 딛고 한걸음 늘다가는 나그네길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지비를 갈출 수 있고, 약도 쓴도 갈출 수 있고, 능력도 갈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넓게 쓰면 넓은 대로 공용을 할 수 있고, 넓게 쓰지 못하면 그냥 행(行)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건데도 수억겁 동안 쌓인 관습과 습관과 욕심 그리고 애착 등 모든 습 때문에 얽매어서 자유스럽게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걸음 살고 나면 내 몸도 가져갈 수 없는데 무엇을 욕심내고 애착합니까. 그리고 행복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누가 대신 갖다주는 것도 아니고 빼앗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게 만들어서 사는 것이고, 악연이나 선연도 자기가 지어서 만나는 것이니 누가 내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팔자운명

이 내 생명이니 모두가 돌이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동공시켜서 한다면 일체를 올린다 해도 삼천배 못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이치를, 이렇게 시원하고 광대무변한 이치를 여러분 모두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우주 바깥으로 한생각에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문지방 너머도 한생각, 천리 만리도 한생각, 지구 바깥도 한생각, 한생각이라는 것은 빛보다 빨라서 한 찰나에 나고 들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이 세상에 형성되지 않았다면 어찌 상대가 있고 생명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는 줄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과 여러분이 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겠습니까. 부처님의 마음으로써 수없는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악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어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명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생전예수재 법회시 설법자료, 법보시 책

생전예수재의 공덕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빛과 향,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 에 미리 보냄으로써 예수재 행사 동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으며 불자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원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신국판 72페이지

◎ 법보시 특가 : 1,500원

생전예수재 용품 · 각종 번 · 장엄 번 · 전산(금·은전)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02)723-4306~7, 팩스: (02)738-8682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101 - 교리·입문편

20C의 창조자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20C의 정신적 흐름을 주도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모태는 '불교'였다

'20C의 창조자', '현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 등 숱한 수식어로 둘러싸인 이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20C 후반에 활동하는 전세계의 작가와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으로 손꼽히는 그의 작품 전반에는 불교적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이 책 『보르헤스의 불교강의』는 단순히 서구 지성의 탐구 이해 차원을 넘어 21세기를 살아갈 현대인 모두에게 세상과 삶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불교가 왜 '내일'의 '대안'일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해 주는 보르헤스어법으로 20세기에 21세기를 온전히 앞당길 수 있는지도 모른다.

이시이문은 "돌은 바, 흰 지와 어둠도 없이 전하리"라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시이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361(영업부), 737-0361(편집부), 737-0367(팩스)

수령 내용	I. 보르헤스의 문학 세계와 불교	II. 불교 강의	대승불교
	보르헤스는 누구인가	전설상의 붓다	라마불교
	보르헤스와 불교	역사상의 붓다	중국불교
	불교와 포스트모더니즘	불교에 영향을 미친 사상	탄트라 불교
	재미있게 읽는 보르헤스	불교의 우주관	선불교
		윤회	불교운리
		불교 교리의 핵심	불교란 무엇인가(강연요지)